

# 지황 재배농가의 판매처별 수익성 분석

홍나경, 이항아, 이마리나, 최돈우  
경상북도농업기술원  
e-mail: tophnk99@korea.kr

## Profitability Analysis by Distribution Channels of *Rehmannia glutinosa* farms.

Na-Kyoung Hong, Hang-Ah Lee, Ma-Ri-Na Lee, Don-woo Choi  
Gyeongsangbuk-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 요약

본 연구는 국내 주요 약용작물인 지황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판매 현황을 알아보고, 재배농가의 판매채널별 수익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지황 재배농가는 연령이 고령화되어가고 있고, 재배경력은 12.5년으로 다소 짧으며, 농가에서 부작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지황의 판매는 지역내 판매비율이 83.2%로 가장 높았으며, 산지시장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셋째, 지황 재배농가의 주요 판매채널인 산지농협, 산지수집상, 위탁도매상의 수익성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 1. 서론

2020년 약용작물 생산실적(통계청)을 살펴보면, 재배면적 11천 ha, 생산량 55천 톤으로 생산량이 전년대비 13.9% 감소하였다. 국내 주요 약용작물 중 하나인 지황은 2020년 재배면적 138ha, 생산량 1천 톤으로 생산량이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황을 비롯한 약용작물 연구로 주로 생약학적 연구(오상아 외, 2015), 재배기술적 연구(남효훈 외, 2021)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영·경제학적 연구는 노재선 외(2012), 최돈우 외(2017)만 이루어졌 지황의 산지유통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약용작물 중 하나인 지황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판매현황을 조사하고 판매채널별 수익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 2.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 2.1 조사내용

지황은 경북, 충남의 재배면적이 각각 69, 60ha로 전체 재배면적의 92.8%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황 주산지인 경북(영주, 안동), 충남(금산)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유효 표본수 30호를 획득하였다. 설문지의 조사내용

은 일반현황, 소득조사, 판매현황, 향후계획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조사농가 일반현황으로 경영주 연령, 영농경력, 영농면적 등을 확인하고, 소득조사에서는 총수입, 유동비용, 고정비용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판매현황은 판매처, 판매지역, 판매시기 등을 살펴보고, 향후계획은 재배 상 애로사항, 향후 재배의향 등에 대한 조사하였다.

### 2.2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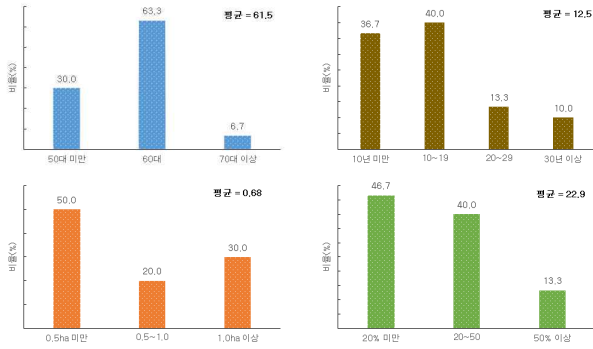
소득분석은 농촌진흥청의 '농산물소득조사분석방법'을 준수하였으며, 판매비율은 판매량을 가중치로 하여 계산되었다.

## 3. 분석결과

### 3.1 조사농가 일반현황

조사농가의 일반현황은 그림 1과 같다. 평균 연령은 61.5세로 50대 미만이 30.0%, 60대 63.3%, 70대 이상 6.7%였으며, 평균 지황 재배경력은 12.5년으로 10년 미만 36.7%, 10~19년 40.0%, 20~29년 13.3%, 30년 이상 10.0%로 나타났다. 평균 지황 재배면적은 0.68ha이며, 0.5ha 미만 50.0%, 0.5~1.0ha 20.0%, 1.0ha 이상 30.0%였고, 경영규모 중 지황의 재배면적 비중은 평균 22.9%로 20% 미만 46.7%, 20~50% 40.0%, 50% 이상 13.3%로 조사되었다. 지황 재배농가는 연령이 고령화되어가고 있고, 재배경력은 12.5년으로 다소 짧으며, 농가에서

부작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지황 조사농가의 일반현황

### 3.2 지황 재배농가의 판매 현황

지황 재배농가의 판매지역별 판매비율은 영주 9.5%, 안동 7.2%, 금산 68.8%, 영천 3.8%, 대전 10.6%였으며, 판매 구분으로 살펴보면, 지역내 판매 83.2%, 지역외 판매 16.8%로 나타났다.

[표 2] 지황 재배농가의 판매지역별 판매비율

판매지역	시군별					판매구분	
	영주	안동	금산	영천	대전	지역내	지역외
비율(%)	9.5	7.2	68.8	3.8	10.6	83.2	16.8

\* 비율은 판매량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음.

지황 재배농가의 판매처별 판매비율은 산지농협 72.3%, 산지수집상 8.8%, 위탁도매상 15.8%, 소매상 0.7%, 가공업체 2.3%, KT&G 0.1%로 나타나 산지시장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 지황 재배농가의 판매처별 판매비율

판매처	산지농협	산지수집상	위탁도매상	소매상	가공업체	KT&G
비율(%)	72.3	8.8	15.8	0.7	2.3	0.1

\* 비율은 판매량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음.

### 3.3 지황 재배농가의 판매처별 수익성

지황 재배농가의 주요 판매처는 산지농협, 산지수집상, 위탁도매상으로 이들 판매처에 대한 수익성 분석을 진행한 결과, 농가수취가격은 산지농협이 6,054원으로 다른 판매처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경영비, 소득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지황 재배농가의 주요 판매처별 농가수취가격, 경영비, 소득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지황의 산지 유통채널별 수익성 비교

구분	농가수취가격 (원/kg)	경영비 (천원/10a)	소득 (천원/10a)
산지농협	6,054	2,792	3,781
산지수집상	5,683	2,586	3,286
위탁도매상	5,667	2,636	3,107
F-value	0.06 <sup>ns</sup>	0.73 <sup>ns</sup>	0.25 <sup>ns</sup>

\* ns : not significant

##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주요 약용작물인 지황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판매 현황을 알아보고, 재배농가의 판매채널별 수익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지황 재배농가는 연령이 고령화되어가고 있고, 재배경력은 12.5년으로 다소 짧으며, 농가에서 부작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지황의 판매는 지역내 판매비율이 83.2%로 가장 높았으며, 산지시장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셋째, 지황 재배농가의 주요 판매채널인 산지농협, 산지수집상, 위탁도매상의 수익성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 참고문헌

- [1] 남효훈 외, “지황 생장의 파과·비파과적 해석”, 한국약용작물학회지 제 29권 4호, pp. 233-241, 8월, 2021년.
- [2] 노재선, “약용작물 및 한방가공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분석”, 식품유통연구, 제 29권 4호, pp. 29-51, 2012년.
- [3] 농촌진흥청, 「2021 농산물소득조사분석방법」, 2021년.
- [4] 오상아 외, “갱년기 모델 유도 흰 쥐에서 갈근과 지황 복합물 및 유산소 운동이 대사이상 개선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제 48권 2호, pp. 133-139, 3월, 2015년.
- [5] 최돈우 외, “약용작물의 경영성과와 효율성 분석: 구릿대와 시호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 18권 6호, pp. 400-406, 6월, 2017년.
- [6]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본 논문은 농촌진흥청 연구과제(과제번호 PJ01576406) 지원으로 수행되었음.